

고흥군, '고흥 올레 콘서트' 안전관리계획 심의회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고흥 올레 콘서트'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박지성 공설 운동장에서 열리는 고흥 올레 콘서트는 인구 10만 달성을 염원하는 올레 첫 공연으로, '살아 있고, 살고 싶은 고흥으로 Let's Go!'라는 슬로건으로 진성, 조항조, 이찬원, 에일리 등 인기 가수 출연도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 안전관리실위원회는 선제적 안전관리와 사고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선양규 부군수 주재로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고흥지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안전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시설물 구조적 안전상태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피난동선 확보 여부 ▲구조·구급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인력 배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점검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미흡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완, 관리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행사 개최 전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행사장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전 이행이 완료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행사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고흥 올레 콘서트'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박지성 공설 운동장에서 열리는 고흥 올레 콘서트는 인구 10만 달성을 염원하는 올레 첫 공연이다. /고흥군 제공

장흥,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장흥군은 최근 '2023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 각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도로관리심의회는 이날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는 수도사업 등 6개 기관에서 신청한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매설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장흥읍 중앙로 전기, 통신관로 지중화 사업은 교통이 복잡하고 보행자가 많은 구간으로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군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공사 중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관리를 하기로 했다.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장 조석훈 부군수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진도군, 성인문해교육 졸업식 열려

초등학력 인증 3년 과정 이수 학력 취득

진도군에서 배움의 시기를 놓친 만학도인 성인 문해교육 이수자들을 위한 졸업식이 개최됐다.

최고령 97세 어르신 등 총 23명이 전남도교육감 지정 초등과정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3곳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해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졸업식이 열렸다.

특히 졸업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졸업생과 졸업생 가족들이 축하 영상을 제작·준비해 참석자들로부터 감동을 받았다. 또 군내면 이·미용봉사단체에서 졸업생들의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고군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억이 담긴 앨범과 다이어리를 후원했다.

졸업장을 받은 김삼심 어르신(97세·진도군 고군면 향동리)은 "항상 마음속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이 맺혀 있었다"며 "배움의 기회를 얻

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초등학교 학력 취득과 함께 졸업까지 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움의 열정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열정에 존경의 박수를 드린다"며 "오늘 졸업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학구열을 불태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 성인 학습자에게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초등·중학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진도군은 2023학년도에 한글학교 61개소 348명, 문해학교(초등, 비지정중등) 19개소 21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완도군,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사업 추진

완도군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 및 군정 방침인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 교육, 심리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1억 7천8백만 원을 투입해 다문화가족 건강 검진 비용과 다국어 번역기 지원, 결혼 이민자는 친정어머니 돼주기, 친정나들이 지원, 국적 취득 비용, 행복 정

착 지원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는 1가구당 250만 원 이내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국적 취득 비용은 1인당 30만 원의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한 총 1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가족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사례 관리·통번역·자녀 언어 발달·자녀 코칭 등을 15개 사업을 지원한다. /백두연 기자

보성, 산양라이온스클럽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

보성군은 최근 보성산양라이온스클럽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주거취약계층 가구(1세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를 시행했다.

대상 가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다수 수상 경력이 있는 역도 꿈나무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다.

보성산양라이온스클럽은 대상 가구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 혼자서는 집 위생을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클럽 회원들은 새집 내·외부의 묵은 쓰레기를 정리, 청소하고 도배·장판과 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노동면에서는 새 이불을 지원했으며, 역도 꿈나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생계지원을 할 예정이다. /강중수 기자

해남군, 사랑의 1분 통화 안부살피기 호응

해남군에서 공공일 자리를 활용해 추진 중인 사랑의 1분 통화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랑의 1분 통화는 생활 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는 시책이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고독사 위기가

구, 장애인가구 총 2천539명 대상으로 해남형 공공일자리(청년일경험드림, 중장년 희망 내일 MY JOB 찾기)를 활용해 사랑의 1분 통화를 실시하고 있다. 주1회 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부재중인 대상자는 가정방문을 실시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최근 안부살피기를 통해 쌀이 부

족한 대상자에게 백미 20kg 1포대를 전달했으며, 육장이 생겼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면 대상자를 위해 보건지소와 연계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기도 했다.

사랑의 1분 통화가 알려지면서 안부살피기 인력으로 도움을 보태고 싶다는 전화와 본인도 안부확인 받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윤보현 기자

